위기의 지역 농업
활로를 찾자

⑯ 신안 튤립 재배 김정원씨

불모지 6년 땀방울…국내 첫 튤립 구근 생산

〈球根·식물의 뿌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튤립 구근을 대량 생산하고 있는 한국화훼구근생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정원씨와 부인 차규순씨가 튤립 수확을 앞두고 튤립을 손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험재배장 만들고 日 드나들며 재배기술 습득

5만㎡ 10종 재배…지자체 주문 수요 크게 늘어

"우리나라 튤립 역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향상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4월 중순이면 신안군 임자면 대기리 대광해수욕장 일대는 원색의 튤립이 바다를 이룬다. 푸른 바다와 함께 어우러진 튤립은 네덜란드 풍차와 함께 잘 어우러져 마치 유럽의 한 도시, 아니 동화 속 요술 나라에 온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만든다. 이곳이 튤립 천국이 된 데는 40대 젊은 귀농인의 땀과 열정 덕택이다.

신안군에서 첫 튤립 재배를 시작한 한국 화훼 구근 생산 영농조합법인 김정원(41) 대표는 사실상 우리나라 첫 튤립 구근(球根·둥글게 되어 있는 식물의 뿌리) 생산자이기도 하다. 그는 1999년 고향인 신안군 임자도로 귀농했다. 16만5천여㎡의 밭에서 대파를 경작하던 아버지의 몸이 불편해지자 서울에서 하던 사업을 접고 귀농을 선택했다.

대(代)를 이어 대파 농사를 지어왔던 탓에 그는 자연스럽게 대파 농사를 하게 됐지만, 과잉생산과 중국산 수입 등이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당시 대파 가격이 매년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면서 농가들이 대부분 '외줄타기' 심정으로 농사를 지을 정도였다.

김 대표는 그래서 대체작목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임자도의 토양이 사질토여서 대체작목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런 김 대표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다.

2002년 목포대학교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에 다닐 때였다. 유럽 연수기회가 있어 목포대학교 원예학과 김병운·유용권 교수와 함께 튤립의 본 고장인 네덜란드를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튤립을 재배하는 토양이 임자도 토양과 비슷한 사질토였던 것이다. 튤립이 사질토에서 잘 재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2003년 자신의 밭 2천㎡에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온 튤립 구근을 심고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튤립을 재배한 탓에 재배 기술 등이 부족해 개화율이 떨어지는 등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에는 생소한 튤립을 재배한다고 하니 다른 농가들은 '미친 짓, 미련한 짓'이라고 그를 비웃었다. 많이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기별로 튤립 구근을 식재한 뒤 퇴비 양을 늘리거나 줄여보기도 했다. 차단막도 설치해보고 볏짚을 쌓아보기도 했다.

재배환경에 대한 각종 실험을 벌인 것이다. 그는 또 일본 튤립 농가를 1년에 2차례씩 방문해 재배 기술을 습득했다. 450년의 튤립 역사가 있는 네덜란드로 날아가 재배기술을 배우고 싶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 대신 일본행을 택했다.

일본도 튤립 재배 역사가 110년이나 되는 만큼 네덜란드 못지 않은 재배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튤립 재배와 관련한 데이터를 만들고 튤립 구근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에 김 대표의 은사인 목포대 김 교수와 유 교수가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주었다. 목포대에 연구 포자 실험동도 마련하고, 김 대표의 튤립 밭에 시험재배장을 만들어 각종 연구활동과 기술개발을 도왔다. 또한, 임자도의 독특한 섬 기후도 김씨의 성공에 많은 도움을 줬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지 않는데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쌀쌀한 바닷바람 탓에 진딧물도 쉽게 기생하지 못했다.

그는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 5만㎡에 튤립 10종을 재배하고 있고, 주변 4곳의 농가를 설득해 작목반을 만들고 영농법인까지 설립했다. 이곳에서 생산된 튤립은 꽃으로 팔려가는 것보다 대부분 튤립 구근으로 판매된다. 주요 판로는 국내 대형 종자 판매상이거나 전국 각 지방치단체다. 요즘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꽃길 조성 등에 튤립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 수요가 많아 공급할 튤립 구근이 부족했다.

김 대표는 "대파에 비해 농자재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평당 순수익도 튤립이 훨씬 높다"면서 "특히 최근 각 자치단체들의 주문이 쏟아지면서 튤립 구근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움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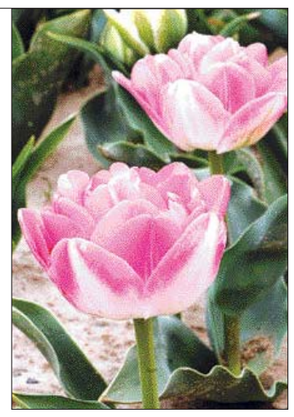
그는 "튤립 재배에는 인력이 많이 들어감에 따라 기계화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직 튤립 재배와 관련해 파종기·수확기 등의 농기계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고, 정부지원도 없는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래서 그는 지난해 일본 튤립 농가로부터 중고 농기계를 구입하려고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았다. 금방이라도 뒤따라올 한국 농업 기술에 불안을 느낀 탓인지 중고 기계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임기응변을 발휘했다. 일본 농가가 고물상에 판 농기계를 고철로 수입해 다시 국내에서 이를 조립했다. 또 수확기는 일본 농기계를 보고 와 자체 제작을 해 사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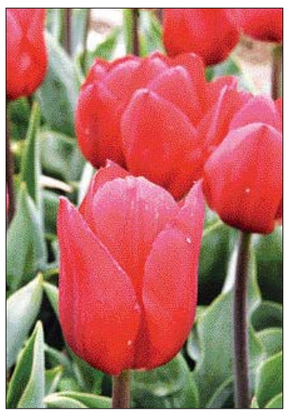
김 대표는 "기존 품종 교배 등을 통한 육종 재배로 국산 구근 개발도 벌일 계획"이라며 지금은 임자도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 외화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외국산 튤립 구근을 수입해 많은 외화낭비가 있었지만, 이제는 값싼 한국산 구근을 생산, 외국에 수출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어 "현재 전국에서 튤립 구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은 신안 임자도"라며 "앞으로 튤립으로의 작목 전환을 원하는 농가의 자립을 돕고, 튤립 농가를 늘려가는 데 힘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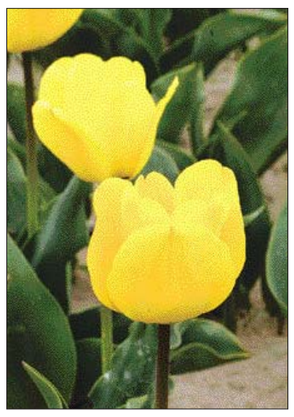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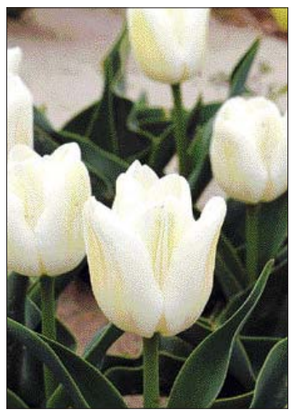
업스타



메리크리스마스



골든아펠던



화이트드림